



드림걸즈



행복을 찾아서

the oscars

오는 25일(한국시간 26일 오전) 로스앤젤레스 코다극장에서 열리는 78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전 세계 영화팬들의 관심사다.

시상식 앞두고 후보작 대거 개봉

'가벼운' 영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설 연휴에 개봉한 아카데미 후보작 '더 퀸'과 '아버지의 이름'은 흥행에서 신통찮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드림걸즈

25년전 브로드웨이에서 첫 선을 보인 동명의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영화로 올해 골든글로브 최다 부문 수상작이며 아카데미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돼 있다.

다이아나 로스가 몸담고 있었던 3인조 여성그룹 '슈프림스'의 실제 이야기를 모태로 한 '드림걸즈'는 무명의 시골 소녀들에서 비틀즈의 인기를 능가하는 최고의 팝스타가 된 슈퍼 그룹 '더 드림즈'의 성공과 불화, 해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좌절, 우정과 배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팝스타 비운의 여왕인 TV 프로인 '아메리칸 아이돌'이 배출한 최고의 스타 제니퍼 허드슨, '레이'에서 열연한 제이미 폭스, 에디머피 등이 함께 호흡을 맞췄으며 뮤지컬 영화의 성공작 중 하나인 '시카고'의 빌 콘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바벨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 주요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돼 있으며 이미 골든글로브 최우수 작품상, 칸 영화제 감독

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9·11 테러와 신자유주의가 바꾼 세상의 풍경을 직시하는 영화로 모로코, 미국, 멕시코, 일본 등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진 4개의 사건이 하나로 묶이는 독특한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영화 잡지 '롤링스톤즈'로부터 가장 성숙하고 감동적인 연기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은 브래드 피트, 케이트 블란체,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 등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행복을 찾아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에 노미네이트된 작품으로 웰스미스가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친아들과 함께 부자 시간으로 분해 멋진 연기를 보여준다.

노숙자였다가 윌 스트리트 정상에 오른 실존 인물 크리스 가드너의 실화가 주된 줄거리. 1990년대 초 의료기기 투자에 실패해 경제난을 겪었던 크리스는 주식 중개인이 되려는 꿈을 꾸지만 현실은 막막하다. 어렵게 인턴십에 참가하지만 정작 인턴이 되는 길은 어렵기만 하고 생활고를 못 이긴 아내마저 떠나 버린다.

발급과 세금을 못낸 탓에 지하철 화장실과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는 그에게 다섯살 난 아들은 그의 희망이자 든든한 위로가 된다. 3월 1일 개봉 예정이다.

▲더 퀸

1997년 발생한 다이애나 황태자비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영국 왕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가상 역사극. 올 아카데미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돼 있으며 TV 시리즈물을 통해 이미 엘리자베스 2세 역을 맡은 바 있는 헬렌 미렌과 토니 블레어로 분한 마이클 윈의 연기도 눈길을 끈다.

▲아버지의 것발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 이어 다시 한번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감독상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으로 1945년 이오지마 전투를 소재로 했다.

감독은 풀러처상까지 수상한 '이오지마 성조기 게양' 사진으로 영웅이 된 3명의 병사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미국 사회에서 영웅이 만들어지는 매커니즘을 고발하며 반전(反戰)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6일 오전8시부터 오후2시까지 OCN 독점 생중계

OCN은 26일 오전8시부터 6시간 동안 '제79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독점 생중계할 예정이다. 또 채널CGV는 25일(일) 오후1시에 2002년 작품상 수상작 '뷰티풀 마인드', 오후4시에 2004년 작품상 수상작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을 연속 방영한다.



손예진, 여간첩으로 변신

영화 '작업의 정석', 드라마 '연애시대' 등을 통해 가장 주목 받는 여배우로 떠오른 손예진(25·사진)이 여간첩으로 변신한다.

손예진은 '영원한 제국'의 박종원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낙랑클럽'(제작 청어람)에서 일제강점기 활약했던 여간첩 김수임으로 분할 예정. '낙랑클럽'은 사회주의자 이강국 역이 캐스팅 되는 대로 3월말 크랭크인 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영화, 상영극장. Lists various movies and their screening venues.

레드카펫 최고의 영예는 누구? 감독상 클린트 vs 마틴...여우주연상 헬렌 미렌 유력



클린트 이스트우드 마틴 스코세시

올 아카데미상에 가장 근접한 작품과 배우는 무엇일까. 두경이 열려봐야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지만 추측은 가능하다.

▲작품상과 감독상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혔던 '드림걸즈'가 탈락하면서 무간도를 리메이크한 '디파티드', '바벨', '미스 리틀 선샤인', '더 퀸',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등 5편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아카데미가 지금까지 6차례 감독상 후보에 올랐으나 번번히 실패했던 '디파티드'의 마틴 스코세시 감독의 손을 들어줄지는 올 영화제 최대 관심사 중 하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중의 한명인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2년전에도 '밀리언 달러 베이비'와 '에비에이터'로 각축을 벌인 바 있다.

▲여우주연상과 남우주연상 '아카데미의 꽃'으로 불리는 여우주연상의 가장 강력한 후보는 '더 퀸'의 헬렌 미렌. 베니스 국제영화제, 전미비평가협회, 골든글로브 등 거의 모든 상을 휩쓴 그녀에게 세계 각국의 언론은 물표를 던지고 있다.

그녀에게 세계 각국의 언론은 물표를 던지고 있다. 그녀의 경쟁자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메릴 스트립, '귀향'의 페넬로페 크루즈, '리를 칠드런'의 케이트 윈슬렛 정도.

남우주연상 후보로는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국내 미개봉작인 '더 라스트 킹 오브 스코틀랜드'의 포레스트 휘테커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CBS 일본선교여행. Includes details about the trip,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participating churches.